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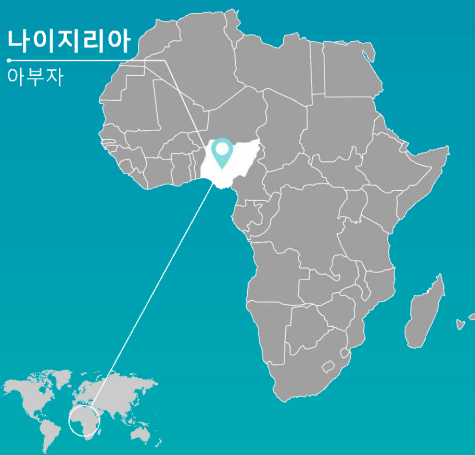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Federal Republic of Nigeria


2019년 11월 26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² 	인구 201백만 명 (2019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GDP 4,465억 달러 (2019 ^e) 	1인당GDP 2,222달러 (2019 ^e) 	통화단위 Naira(N) 	환율(\$기준) 306.60 (2019 ^e)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1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2.0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374.5억 배럴의 원유(세계 11위)와 5.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10위)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1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겪은 후 1~2% 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경제통합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반면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2월 대선에서 Muhammadu Buhari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부족 및 종파 간 갈등,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공격 등으로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2. 22 수교 (북한과는 1976. 6. 25)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정('06), 문화 및 교육 협력협정('12)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460,813	2,121,967	917,850	석유화학제품, 코코아, 고무
수입	524,860	500,438	1,047,562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44건, 302,270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2.7	-1.6	0.8	1.9	2.3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5.7	16.5	12.1	11.3
재정수지/GDP	-3.5	-4.0	-5.4	-4.5	-5.0

자료: IMF, EU

비석유 부문의 부진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저성장 지속 전망

-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이지리아 경제는 201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1.6%)을 시현한 뒤 유가 반등에 따라 2017년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이후 성장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비석유 부문의 부진과 인프라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2019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3.2%) 대비 저조한 수준인 2.3%의 성장이 전망됨.
- IMF는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2.3~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IHS Markit은 나이지리아 경제전망 보고서(2019.11.19.자)에서 비석유 부문의 정체와 반정부 무장단체의 석유 생산시설 공격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성을 근거로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음.
 - * IMF 경제성장률 추정치(%) : 2.3('19) → 2.5('20) → 2.5('21) → 2.7('22) → 2.6('23) → 2.6('24)
 - ** IHS 경제성장률 추정치(%) : 1.8('19) → 1.8('20) → 2.0('21) → 2.1('22)
-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2017년부터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ERGP)을 추진 중임. ERGP는 4년 간(2017~20년)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원유 증산, 재정지출 확대, 산업다각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정책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연평균 경제성장률 4%대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2015~16년 저유가와 반정부 무장 조직의 석유 생산시설 파괴활동으로 인한 산유량 감소로 GDP 대비 -3.5~-4.0%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정부가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철도 등 인프라 부문을 위주로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2017년부터 GDP 대비 -4~-5%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동 비중이 -5.0%로 전년 대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16년부터 예산을 확대 편성*해 오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조 7,290억 나이라(약 352억 달러)를 책정하였음.

* 예산규모(나이라) : 6조 600억('16) → 7조 3,000억('17) → 9조 1,200억('18) → 10조 600억('19) → 10조 7,290억('2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목표치와 큰 차이

-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라화 가치 하락과 연료보조금 폐지 결정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6년 15.7%로 상승하여 2017년 16.5%까지 이른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8년 12.1%에 이어 2019년에는 1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14%에서 13.5%로 3년 4개월 만에 인하한 이후, 향후 물가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임을 발표함.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6~9%로 설정하고 있으며, Godwin Emefiele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020년에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상수지	-15,439	2,722	10,399	5,334	2,370
경상수지/GDP	-3.1	0.7	2.8	1.3	0.5
상품수지	-6,447	-536	13,148	22,337	17,093
상품수출	45,888	34,704	45,817	63,090	63,710
상품수입	52,335	35,240	32,669	40,754	46,617
외환보유액	25,962	24,981	37,223	40,510	40,664
총외채	47,351	45,702	50,564	63,422	69,789
총외채잔액/GDP	9.6	11.3	13.4	15.9	15.6
D.S.R.	10.8	13.8	10.5	9.7	9.1

자료: IMF, EIU

산유량 불안정 및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원유수출이 상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의존적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국제유가와 원유 생산량에 크게 좌우됨.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시작된 저유가 추세로 인해 경상수지는 2015년에 GDP 대비 -3.1%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6년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폭이 상품수출 감소폭을 앞지르며 경상수지가 GDP 대비 0.7%로 흑자를 회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석유·가스 수출 증가와 더불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 품목 수입규제로 상품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2.8%로 증가하였음.
- 2018년에는 유가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의 석유시설 공격 지속으로 인한 석유 수급 불안정과 경기 둔화세 완화에 따른 상품수입의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3%로 감소하였음.
- 2019년에는 송유관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산유량 불안정으로 총수출 증가율이 33.5%에서 1.5%로, 상품수출 증가율은 37.7%에서 1.0%로 둔화됨에 따라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2019년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2014년 이후 저유가 추세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정부가 수입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하면서 외환보유액은 2014년 342억 달러에서 2015년 260억 달러로 감소함.
- 2016년에는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러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외환소비가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250억 달러로 더욱 감소함.
- 정부의 외환통제는 계속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석유 생산량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2017년 372억 달러, 2018년 4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40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7년 7.0개월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5개월로 감소했고 2019년에도 5.2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

-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5년 승인된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300억 달러)과 GDP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2년 말 3.6%까지 낮아졌음.
-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 정부의 선심성 정책,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채규모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동 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5%대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3%p 하락한 15.6%로 예상됨.
 -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
6.6('13) → 7.4('14) → 9.6('15) → 11.3('16) → 13.4('17) → 15.9('18) → 15.6('19)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또한 전년도 49.1%에서 39.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의 양허성차관임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D.S.R은 2016년 13.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한 자릿수(9.7%)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9.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정적인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석유와 농업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 석유 및 농업 부문이 GDP의 35%를 차지하고, 원유 수출이 총수출의 약 80%에 이르는 등 산업생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국제유가 변동 및 기후 변화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사업환경

-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철도 등 운송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여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전력공급 부문이 190개국 중 최하위권인 169위에 위치할 정도로 전력 사정이 열악하며, 동 보고서의 종합 순위에서도 131위로 직전 평가 대비 15계단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함.
- 아울러 나이지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전체 180개국 중 144위에 그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8년 말 기준 374.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11위, 아프리카 2위) 및 5.3조m³의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10위, 아프리카 1위)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임.
-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로 2012년부터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감소했으나, 이후 인도가 나이지리아의 최대 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세계 7위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

- 2019년 인구가 약 2억 명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내 최대 및 세계 7위의 인구대국으로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규모 또한 대륙 내에서 가장 큰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참여로 역내 대규모 단일시장 형성 기대

- 7월 7일 나이지리아와 베냉이 AfCFTA에 서명하며 아프리카연합(AU)의 55개국 중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54개국이 협정에 가입하게 됨. AfCFTA는 인구 12억 명의 대규모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 AfCFTA는 2020년 7월부터 수출입 상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AfCFTA로 2022년까지 대륙 내 무역이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기업경영여건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가나 등에 비해 나이지리아의 경우 경제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AfCFTA 가입이 오히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기업경영여건 순위(세계은행) : 남아프리카공화국 84위, 가나 118위, 나이지리아 131위

정책성과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 목표 달성 난항 예상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7년 3월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의 발표를 통해 인프라 개선과 식량안보 등 5개 중점과제의 해결로 2017~20년 동안 연평균 4.6%*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연도별 목표 경제성장률: 2.19%('17) → 4.80%('18) → 4.50%('19) → 7.00%('20)

- 2017년 0.8%, 2018년 1.9%에 이어 2019년에는 2.3%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이며, Buhari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실업률이 세 배로 증가하고*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1달러 90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등 경제여건이 오히려 악화되었음.

* Buhari 대통령 취임 당시 한 자릿수이던 나이지리아의 실업률은 2018년 3분기 중 10년 간 최고치인 23.1%에 육박한 바 있음.

<표 1> 나이지리아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 주요 내용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ERGP)

중점 과제	세부추진 방안
거시경제환경 안정화	- 금융, 무역, 재정정책 간의 조화 - 비석유 부문 육성 -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 절감 - 공공기관 및 국가자산 민영화
농업 및 식량안보 강화	- 농업개혁 정책 이행
교통 인프라 개선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 추진 - 민영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력·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에너지 확보	- 조속한 석유 증산 - 전력 인프라 확충 - 각 지역의 원유 정제시설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화	- 기업환경 개선 - 제조업 개혁 정책 시행

자료: 나이지리아 예산기획부

정책 시행의 추진력 부족

- Buhari 대통령은 첫 임기의 각료 임명에만 6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에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며 'Baba Go Slow'라는 냉소적인 별명으로 불림.
- 4월 서명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수개월째 시행에 이르지 못하며 파업 예고 등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함.
- Buhari 대통령은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정치동향

2019년 대선에서 Buhari 대통령 재선 성공

- 2월 23일 대선에서 Buhari 대통령은 56%의 득표율로 41%를 얻은 야당 인민민주당(PDP)의 Atiku Abubakar 후보에 승리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2023년까지 임기가 연장되었음.
- 첫 임기 동안 병명을 밝히지 않은 치료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서 150일 이상을 국외에 머물렀던 만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Buhari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치안 확보와 경제 회복 등의 이슈를 마주하고 있음.

사회동향

부족 간 갈등 격화로 난민 발생

-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무슬림 유목민족인 Fulani 부족과 농경민족인 Hausa 부족 사이의 갈등이 Fulani 부족의 무장활동으로 이어지며 2011년 이래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00명 이상의 난민이 인접국인 니제르로 피난함.
- 올해 두 부족의 충돌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Boko Haram의 테러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됨.

종교 차이에 의한 갈등 및 경제적 목적의 폭력 사태 지속

- 북부 무슬림과 남부 기독교도 간 갈등뿐만 아니라, 이슬람 시아파에 속하는 '나이지리아 이슬람운동'(IMN)이 지도자 Ibrahim el-Zakzaky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무슬림 내부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이 대두됨. 당국은 IMN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여 활동을 금지하였음.
-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경제 성장,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납치 사건이 증가하여 치안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19년 6월 국제평화지수 보고서에서 163개국 중 148위(사하라 이남 44개국 중 40위), 2018년 12월 국제테러리즘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3위를 기록함.

사회동향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Boko Haram에 의한 테러 지속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Boko Haram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근거지를 두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며 10여 년째 활동 중임. 이들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에서 방화를 저지르거나 어린이 또는 여성을 납치하여 자살폭탄 테러에 투입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Boko Haram 소탕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왔으나 Boko Haram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Boko Haram의 공격으로 2만여 명이 살해당하고 26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지연에 정부와 노동단체 간 긴장상태 고조

- 4월 Buhari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월 18,000나이라(약 50달러)에서 30,000나이라(약 83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나 수개월째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9월 연방정부는 新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단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함.
- 정부와의 협상이 교착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Nigeria Labour Congress 등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파업만이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단이라고 공표함. 이들은 또한 정부에 新최저임금 시행 데드라인을 10월 31일로 통보함.
- 이후 정부는 노동계와 합의하여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월 30,000나이라의 新최저임금에 대한 결과적 조정금액을 연내 지급 완료하도록 재무부와 연방회계총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함.

국제관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사이에 외국인 혐오에 의한 약탈 및 보복공격 발생

- 9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부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상당수가 나이지리아인) 소유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 및 방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점 및 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벌어짐.
- 사태의 배경에는 남아공의 실업률이 28%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로 이어진 결과가 있음.
- 사태 직후 남아공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 남아공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였고, 나이지리아의 Osinbajo 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세계경제포럼에 불참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600여 명의 자국민들을 항공기로 귀국시키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음.
-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대표단을 남아공에 파견하였고, Buhari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으로서 6년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Cyril Ramaphosa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음. 양국은 폭력 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수립 및 무역, 산업, 과학기술, 국방,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30여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 인도는 2014~15년 미국을 제치고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으며, 2018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상품수출 중 27.7%를 차지함.
-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2위 교역 상대국 및 최대 채권국에 해당하며, 나이지리아 내 철도와 발전소 등 프로젝트 참여를 늘려가는 추세임.
 - * 중국 기업들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를 위주로 470억 달러 이상의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대규모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2005년 파리클럽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300억 달러의 나이지리아 외채 중 60%인 18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 300억 달러의 외채를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식(buyback)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바 있음.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19년 6월 말 기준 나이지리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 11.0억 달러(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9.4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31.8백만 달러(여신잔액의 2.9%)로 집계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9.10)	6등급(2018.10)
Moody's	B2 (2017.11)	B2 (2016.04)
Fitch	B+ (2017.01)	B+ (2016.06)

OECD는 6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사는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2016년 저유가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악화 등을 반영해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해오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도 2016년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Fitch는 한 등급, Moody's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016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둔화 및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유가 회복세에 따라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여 2017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였음. 다만 비석유 부문의 부진과 열악한 인프라, 무장단체의 석유 생산시설 공격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17년 0.8%, 2018년 1.9%에 그쳤으며, 2019년에도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인프라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사회 불안 및 부정부패가 지속됨에 따라 2.3%의 저성장이 예상됨.
- 2019년 대선에서 Buhari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부족 및 종파 간 갈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과 Fulani족 무장세력 및 남부의 Niger Delta Avengers의 테러 활동, 역내 국가 간 갈등 등으로 정치/사회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가 회복과 석유생산량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외채 증가와 페그제 폐지 이후 지속적인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만,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의 양허성차관임을 감안할 때 단기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